

# 해남M농협 조합장 상식이하 발언 등 '논란'

### 임단협 과정서 특정 직원 업무재배치는 노조 탄압 "술 사주라 찾아오면 승진시켜 주겠다" 직원들 공분 농협 측 "업무향상 위한 조치·대화하자는 취지" 해명

전남 해남의 한 농협이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재배치와 조합장의 상식이하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노조조합에서는 임단협에 참여한 특정 노조원을 겨냥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한 반면 농협은 집계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업무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1일 해남M농협 등에 따르면 전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해남지회는 M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와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장의 눈 밖에 나면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해고나 다른 없이 타 농협 전직, 배치전환 등이 조합장의 기분에 따라 무분별하게 단행되고 있다"면서 "인사전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합장이라는 지위가 악용돼 농협조직을 농단하듯 막힘없이 관철되는 다양한 형태의 직원 길들이기는 농협노동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음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 농협은 이달초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갑작스럽고 부적절한 업무재배치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업무를 맡아왔던 여직원들을 주유소 주유원과 하나마트 구매담당자로 전보했으며, 기능직 주유배달담당자는 이례적으로 금융텔러 업무로 배치했다.

또 직원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인사이동 희망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 "술 사주라 찾아오면 승진시켜 주겠다"는 등 상식이하의 발언은 직원들을 공분케했다.

김철완 M농협분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특정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벌



어지고 있어 통상적인 업무배치가 아닌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조합장의 업무재배치는 직원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위원회 및 조사과정·조사결과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농협중앙회의 노사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M농협은 업무의 다양화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M농협 조합장은 "이번 인사는 특정 직원만이 아닌 사업 다변화를 위해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면서

"조합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조합이 최근 평가에서 63개 조합 중 꼴등을 했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업무분장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농협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조합장실은 열려있다"는 등 직원들과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상식이하로 비춰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11일 국회에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 순천소방서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9일 오전 11시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본서 3층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방인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소규모 자체 행사로 진행됐으며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처음 맞이하는 제58주년 소방의 날은 소방가족의 긍지를 높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지난 우리지역 구례군 집중호우, 코로나19 대응 등 관내 위기상황 속에서 소방가족들이 보여준 땀과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교사 채용 비리 의혹' 광주 명진고 압수수색

경찰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명진고등학교 행정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교원 채용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가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전환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채용 부정 정황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빈 공장 노려 400만원대 전선 훔친 4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동을 앞둔 빈 공장에서 상습적으로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3개월간 광산구 평동 한 공장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총 300kg을 훔친 혐의이다.

조사 결과 정씨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공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공장 담벼락에 난 작은 구멍이나 잠가지 않은 문 등을 통해 침입,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을 잘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일 전남 담양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담당 형사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정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범인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임형택기자

## 여수서 고교 용접 실습장 불...290여 명 긴급 대피

11일 오후 1시50분께 전남 여수시 화강동 모 고등학교 2층 용접 실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5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학생과 교직원 29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여수시 돌산읍 갯바위 훼손 행위...원상회복 명령 내려

###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진행 계획

여수시는 최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 시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피허가 업체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테크잔여물을 제거하고 오는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

피허가 업체는 당초 해안테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 4월 2025년까지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8월에 테크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9월 태풍으로 인해 설치

된 테크가 파손, 소실되자 해당업체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파손된 앵가와 철근 등으로 위험하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달 6일 불법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즉시 현장 출동해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훼손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8일 업체로부터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차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20일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무단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여수시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가 알고도 묵인했다. 피허가 업체를 비호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해 원상복구의 구체적 방법이나 범위 등에 대한 사례 연구나 법 해석 등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복구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하겠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해경, 정선명령 불응·도주 어선 추적 불응·도주 어선 추적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40분께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0.7해리 해상에서 보성 선적 양식장 관리선 A 호(7.3t)가 해경 연안 구조정의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해경은 불법 어구적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선을 확인하기 위해 정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호 선장 B(33) 씨는 10일 오후 6시께 여수시 화정면 남도 인근 선착장에서 출항해 한 시간 뒤 남도 남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해양경찰관의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해상까지 4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선박의 조명 장치와 각종 등을 소등한 상태로 도주하면서 해경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